이목을 끈 소나무주제 미술작품전시회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평양국제문화회관에서 미술작품전시회 《조선의 국수—소나무》가 성황리에 진행되였다.

이번 전시회에는 각지의 미술창작가들과 애호가들이 창작한 150여점의 소나무를 주제로 한 미술작품들이 출품되였다. 전시회에 출품된 소나무를 주제로 한 미술작품들가운데는 국보적인 작품으로 등록된것들도 적지 않았다.

그중에서도 지난 시기 소나무를 주제로 하는 미술작품들을 많이 창작하여 소나무화가로 널리 알려진 만수대창작사 조선화창작단 인민예술가 리경남이 그린 조선화 《소나무》는 독특한 구도와 힘있고 률동적이면서도 로숙한 기법으로 하여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몰골기법의 특징을 살려 소나무의 형태학적특징과 색감, 질감, 립체감 등을 집약적으로 표현한 작품은 볼수록 깊은 사색의 세계에 빠져들게 하였다.

공훈예술가 황영준이 창작한 조선화 《락락장송》도 참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우불구불한 소나무줄기를 화폭의 중심에 형상한 조선화 《락락장송》을 보느라면 바위우에 억세게 뿌리박고 세월의 풍상고초를 꿋꿋이 이겨내며 서있는 소나무의 억센 기상이 눈앞에 어려오는 듯싶어 사람들은 그앞에서 자리를 뜰줄 몰랐다.

조선화 《모란봉 을밀대의 아침》

이밖에 조선화 《억센 소나무》, 《찬서리를 이겨내며》, 아크릴화 《룡악산의 푸른 소나무》들도 사시장철 푸름을 잃지 않고 그 어떤 풍파에도 끄떡없이 자라는 소나무를 생동한 화폭으로 보여주었다. 소나무의 밑부분과 웃부분을 대담하게 생략하고 터실터실한 껍질이 인 소나무줄기에서 뻗어내린 가지들과 무성한 솔잎을 형상한 작품도 깊은 인상을 남기였다.

전통적인 조선화기법으로 세련되고 우아하면서도 립체감이 나게 창작한 조선화 《력사국의 자랑을 전하며》, 《푸른 하늘을 떠이고》와 수예 《소나무와 참매》를 비롯한 작품들도 소나무에 비낀 우리 민족의 기상, 공화국의 강인성을 잘 보여주었다.

각지의 미술애호가들이 창작한 소나무그림들도 참관자들의 경탄을 자아냈다.

그런 작품들가운데는 함흥고려병원 로동자가 창작한 유화 《동해의 억센 소나무》, 평성시 덕성소학교 학생이 소나무숲 우거진 고향마을을 형상한 크레용화 《고향마을》, 모란봉구역 긴마을1유치원 어린이가 흰눈 떠인 소나무우듬지에 앉아있는 참매와 그밑에서 좋아라 웃고떠드는 아이들을 생동하게 형상한 크레용화 《우리 나라 제일이야》 등도 있었다.

조선의 국수—소나무!

부르면 부를수록 애국으로 심장을 끓게 하고 민족의 넋과 기상이 비껴있는 소중한 부름이다.

참관자들로 련일 흥성인 미술작품전시회는 조선의 국수인 소나무에 대하여 더 잘 알게 하고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도록 하는데서 의의깊은 계기로 되였다.

본사기자 김 진 혁

제 8 차 금코끼리상 국제교예축전에서

조선의 체력교예에 축전최고상 수여

제8차 금코끼리상 국제교예축전이 지난 2월 14일부터 19일까지 에스빠냐에서 진행되였다.

축전에는 조선, 로씨야, 중국, 몽골, 뽈롬비아 등 13개 나라의 유명한 교예배우들이 참가하였다.

《날파람의 기상》, 《상모놀이》를 비롯한 체력교예 종목들을 가지고 출연한 국립교예단 예술인들은 세련되고 열정적인 형상과 높은 기량으로 날로 발전하는 주체교예예술의 참모습을 잘 보여주었다.

2월 19일에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체력교예 《날파람의 기상》에 축전최고상인 금코끼리상이 수여되였다.

람홍색공화국기를 들고 무한한 긍지와 환희에 넘쳐있는 조선의 교예배우들을 향해 관중들은 《조선 장하다!》고 웨치며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였다.

축전조직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독특한 기교동작들과 화려한 률동으로 일관된 조선배우들의 공연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였다.

민족적색채가 짙은 조선의 황홀한 체력교예종목들이 있어 축전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게 되였다.

조선의 교예가 이렇듯 높은 경지에 이른것은 국가의 혜택속에서 배우들이 자기의 예술적재능을 마음껏 꽃피우고있기때문이다.

앞으로 조선과의 문화적협조를 보다 활발히 해나가겠다.

로씨야 니꿀린모스크바교예단 부총지배인, 뻬루교예단 총지배인을 비롯한 교예전문가들은 조선인민의 강의한 정신력을 남김없이 보여준 훌륭한 공연이다, 민족적정서가 차넘치고 구성이 짜여있어 예술적면에서 완벽하다, 조선이 교예분야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고 하면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본사기자

201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선수(5)

9. 2중아시아레스링선수권보유자 박영미

공훈체육인인 박영미는 평양체육단의 레스링선수이다.

그는 지난해 제18차 아시아경기대회 녀자레스링 53kg급경기와 2018년 아시아레스링선수권대회 녀자레스링 53kg급경기에서 각각 금메달을 쟁취하고 201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선수로 선정되였다.

원래 그의 어릴적꿈은 이름난 미술가가 되는것이였다. 그러나 화판우에 공화국기를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계의 하늘가에 공화국기를 휘날리는 체육인이 되려는 야심만만한 배짱을 안고 그는 레스링선수가 되였다.

그는 평양체육단에서 선수생활을 시작한지 1년만에 태양절경축 만경대상 체육경기대회 녀자레스링 48kg급(2급)경기에서 우승하고 첫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그후 2013년과 2018년에 아시아레스링선수권대회 녀자레스링경기에 출전하여 맞다든 모든 선수들을 물리치고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였으며 이로 하여 2중아시아레스링선수권보유자로 되였다.

그는 오늘도 더 높은 국제경기성과를 안아오기 위해 훈련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10. 재능있는 중량급력기강자 김은주

공훈체육인인 기관차체육단 녀자력기선수 김은주는 2018년 국제력기련맹 세계력기선수권대회 녀자력기 87kg급 추켜올리기종목에서 1등을 쟁취함으로써 조국의 영예를 떨치였다.

평안남도 숙천군이 고향인 그는 소학교시절에 학습도 잘하고 음악에도 취미를 가지고있었다.

그후 청천강체육단에서 력기기초기술을 습득한 그는 기관차체육단 선수로 생활하면서 정해진 훈련과제외에 자체로 훈련계획을 세우고 부단히 훈련하면서 육체기술능력을 끊임없이 높여나갔다.

2007년 공화국선수권대회 녀자력기 69kg급경기를 비롯한 여러 국내경기들에서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 그는 중량급에서 재능있는 선수로 인정받고있다.

지난해에 거둔 우수한 경기성과로 하여 201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선수의 영예를 지닌 그는 세계력기계를 뒤흔들 배심을 안고 훈련의 낮과 밤을 이어가고있다.

본사기자 현 은 경

조선민족의 자랑 훈민정음

훈민정음은 15세기에 창제된 조선민족의 고유한 민족글자이다.

이미 세나라시기부터 리두문자를 사용하여오던 우리 겨레는 1444년에 가장 발전된 문자인 훈민정음을 창제함으로써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훈민정음은 우리 겨레가 오랜 글자생활의 경험에 기초하여 독자적으로 만든 가장 발전된 글자이다. 《훈민정음》이란 글자그대로 해석하면 《백성들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말인데 이것은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한 바른 소리를 적는 훌륭한 글자》라는 뜻을 담고있다.

훈민정음은 가장 발전된 글자로서 여러가지 우수한 특성들을 가지고있다.

훈민정음은 첫째로, 글자에서 가장 발전된 류형인 낱소리글자이다. 낱소리글자는 글자발전의 견지로 보아도 제일 발전된 류형이며 더구나 소리마디가 풍부하고 자음과 모음들이 다양하게 조화된 우리 말을 적는데는 그것이 제일 적합하다. 훈민정음은 개별적인 말소리들을 따로따로 나타내는 낱소리글자이면서 첫 소리와 끝소리를 나타내는 자음글자와 가운데소리를 나타내는 모음글자를 구분하여 만든 글자이다. 따라서 이 글자는 우리 말의 풍부한 말소리들을 다 잘 나타낼수 있는것은 물론 세계 어느 나라 말소리들도 거의 다 나타낼수 있게 되여 있다.

훈민정음은 둘째로, 음운체계의 특성과 글자체계를 기본적으로 대응시키면서 당시에 존재하던 여러가지 말소리들을 다 적을수 있게 만든 글자이다. 이 글자는 우리 말의 음운과 음운체계에 대한 깊은 고려에 기초하여 만들었기때문에 독자적인 음운들을 거의다 기본글자로써 나타낼수 있게 되여있으며 소멸 또는 형성되여가는 과정에 있는 말소리들도 기본글자들을 활용하여 적을수 있게 되여있다.

훈민정음은 셋째로,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따는 독특한 원리에 기초하여 만든 글자이다. 이 글자는 혀, 입술, 이, 목구멍과 같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따서 기초글자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기본으로 하면서 말소리들의 특성에 맞추어 획을 더하거나 두개 또는 세개 글자들을 합치면서 나머지의 모든 글자들을 체계성있게 만들었다.

훈민정음은 넷째로, 매우 배우기 쉽고 쓰기 편리한 글자이다. 이것은 기본글자가 28자로서 그 수가 적고 글자들의 획이 간단하며 체계적으로 서로 련관되여있다. 또한 글자의 모양이 그다지 복잡하지 않고 균형이 잡혀있으며 세련되여있다. 그리고 말소리들의 특성에 따라 매 글자들을 리치적으로 쉽게 리해할수 있게 되여있다.

훈민정음의 창제는 우리 겨레의 언어생활과 력사발전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였다. 고유한 민족문자의 창제에 의하여 우리 겨레는 서사생활에 자유롭게 참가할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되였다. 훈민정음의 창제는 민족어의 규범을 세우며 그에 의한 언어생활의 통일성을 보장할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한 점에서도 력사적의의가 있었다.

훈민정음과 같은 우수한 민족문자를 만들어낼수 있었던것은 민족문화의 오랜 전통과 풍부한 유산에 토대해서만 가능한것으로서 이를 통하여 우리 민족의 슬기와 재능을 잘 알수 있다.

김 명 일

단편소설

철마의 꿈 (4)

글 조 정 협, 그림 리 성 일

수연은 바이올린을 내려놓고 달려나갔다. 밀랍으로 빚은것같은 작고 통통한 손으로 재빨리 문을 열어젖히자 차거운 기운과 함께 승냥이의 울부짖음 같은 눈보라소리가 쓸어들었다.

《이 집이 윤정수씨댁이옳으냐?》

방안에서 흘러나간 불빛이 두터운 외투를 입고 검은 목도리를 둘러감은 한 녀인의 모습을 비쳐주었다. 어린 수연은 추위에 퍼렇게 얼어버린 녀인의 얼굴을 공포에 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였다.

이때 아버지가 《누구신가요?》 하며 방에서 나왔다. 녀인을 본 아버지의 얼굴은 금시 백지장처럼 되여버렸다. 잠시후 아버지는 어린 딸을 황황히 방안으로 들여보내고는 문을 쾅— 소리가 나도록 후려닫았다.

그러는 아버지를 이상하게 여긴 수연은 문틈에 귀를 대고 두사람의 이야기를 엿들었다. 몇마디 말이 오가더니 아버지가 갑자기 어성을 높이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그것도 순간일뿐이였다.

《형님을 아예 잊어버린건 아니예요?》

녀인의 담담한 그 목소리에 사위는 물뿌린듯 고요해졌다.

《나에게 큰아버지가 있었단 말인가?》

수연은 호기심을 안고 다음 말을 기다리였다.

녀인이 불쾌한 어조로 말을 이어갈 때 아버지쪽에서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하지만 잠시후 아버지는 작심한듯 단호히 소리쳤다.

《난 그런 사람을 모르오. 나가시오!》

수연은 화들짝 놀라며 작은 가슴에 손을 얹었다.

얼마후 문열리는 소리와 함께 다시 스산한 겨울바람소리가 들려왔다.

이윽고 아버지가 방안에 들어왔다. 몹시 흥분된 기색이였다. 수연은 금방 왔던 녀자가 누구냐고, 그가 누굴 찾는가고 물어보았다. 그제서야 아버지는 태연해보이려 애쓰며 《뭐, 그냥 술취한 녀자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리고는 아무 말없이 수연의 앞을 지나쳐갔다. 탁자우의 바이올린이 아버지의 옷자락에 걸려 땅바닥에 떨어졌다. 허리 잘룩하고 반질거리는 물건이 태질하며 울리는 피이한 신음소리에 수연은 금시 가슴이 얼어붙는것만 같았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런 감각도 없는것 같았다.

예쁘장한 그 모양이 우리 수연이 같다며 두볼을 대이고 쓰다듬던 아버지가 아니였던가.

수연은 의아한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한참후에야 수연을 향해 돌아선 아버지는 《아무 일도 아니다. 근심말어라. 다 너를 위해서란다.》 하고 뜻모를 소리를 뇌이는것이였다.

그 일이 있은 후로 아버지는 몹시 울적한 나날을 보내였다. 일에 시달리다 돌아오면 수연의 바이올린소리를 들으며 피로를 풀던 아버지였건만 차츰 거기에 별로 관심을 돌리지 않았다. 유일한 관객인 아버지의 무관심에 수연도 흥심을 잃어버렸고 바이올린은 벽장속에 틀어박혀 먼지만 들쓰게 되였다.

…

아버지는 한생 가슴에 깊이 품고산 비밀을 털어놓았다.

《저승길에 오른 몸이 무얼 숨기겠니. 넌 그때 그 녀자가 누구냐고 물었지? 그는 어린시절 나와 한마을에 살던 녀자였다. 그리고 한책상에 앉아 글을 배웠지.》

《그랬군요. 그런데 왜 그냥 돌려보냈어요? 그 추운 겨울밤에.》

수연은 정이 많은분이라고만 여겼던 아버지를 놀라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난 잊을건 잊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 마음을 너는 다 리해 못할거다. 그날밤 그는 우리에게 글을 가르친 옛 선생님을 나에게 상기시키더구나. 그 선생님은 바로 너의 큰아버지였단다.》

아버지는 딸에게 왜 가정의 래력을 숨기려 했는가를 이야기하였다. 아버지의 이야기에는 불행한 력사가 비껴있었다.

일찍 부모를 잃은 그에게 형은 아버지나 다름없었다. 학비를 물지 못해 중학교를 중퇴한 형은 어느 기관구에 들어가 잔뼈가 굳기 전부터 험한 로동을 시작하였다. 그러던 그는 해방을 몇해 앞두고 고향에 돌아와 시골학교 선생이 되였다.

기관구에서 로동을 하던 시절 선배로동자들의 영향속에 착취와 압박이 없고 근로하는 대중이 나라의 주인이 된 새세상을 동경해온 형은 학생들에게 민중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 목숨도 바쳐 싸워야 한다고 력설하군 하였다.

이후 해방 그리고 전쟁이 이 나라 력사에 거대한 자취를 새기며 다가왔다. 전쟁시기 의용군에 탄원하여 인민군대를 따라간 형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무서운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다. 잔혹한 《빨갱이사냥》이 시작되였던것이다.

인민군대를 도와주었거나 조금이라도 거기에 련루된 가족들이 입는 피해는 형언할수 없는것이였다. 하루밤 자고나면 앞마을 사람들이 도륙을 당하고 또 하루밤 지내고나면 이웃마을 사람들이 줄줄이 묶여 어딘가로 끌려가군 하였다.

형이 인민군대를 따라갔으니 자기도 무사치 못하리라고 생각한 아버지는 지체없이 멀리로 들구뛰였다. 단속에 걸리면 방랑하는 고아라고 우기였다.

그는 형의 존재자체에 대해 잊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니였다.

그렇게 얼마간 세월이 흐른 뒤였다. 어느날 신문을 펼쳐들고 어떤 재판과 관련한 기사를 읽던 아버지는 깜짝 놀랐다. 피고는 다름아닌 형의 제자이자 자기의 동창생이였던것이다.

기소내용은 기가 막혔다. 사람들앞에서 파쇼통치체제를 규탄하고 통일을 주장한것 등을 엄중한 《리적활동》으로 몰아붙이였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무죄를 주장하며 구명운동에 나섰다. 하지만 아버지는 침묵할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른 어느날 그 녀인이 아버지앞에 나타났던것이다.

겨울밤의 문두드리는 소리는 마치 인간에게 망각의 자유는 없는것이라고 알리는것 같았다. 이미 다 지나가버린 것으로 여겼던 과거가 자기 눈앞에 나타난것에 놀라고 화가 동한 아버지는 그를 쫓아버리고말았다. 그것은 어린 자식의 눈동자에 지울수 없는 영상을 남겨놓았다.

《내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아니? 아무래도 피줄은 잊을수 없어. 난 지금 형이 보고싶다. 형앞에 용서를 빌고싶어. 그리고 그 녀자에게도. 헌데 저승에 가서도 난 그들을 볼것 같지 못하구나.》

아버지의 눈귀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였다.…

운명의 희롱인듯 오늘 윤수연은 바로 그 녀인과 함께 《평양행》 기차를 타고있었다.

윤수연은 눈보라 사납던 겨울밤의 이야기며 아버지가 그 일로 하여 받은 마음의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그분은 림종시에 선생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빌고싶다고 했답니다.》

무릎우에 놓인 녀인의 두 손이 바르르 떨리고있었다.

두부맛기

우리 선조들의 슬기로운 지혜와 재능을 보여주는 비물질문화유산들중에는 두부맛기도 있다.

콩의 원산지인 우리 나라에서는 콩으로 만든 음식이 먼 옛날부터 다양하게 발전하여왔다.

두부는 잘 불군 콩을 갈아서 자루에 넣어 짜낸 콩물을 끓인것에 서슬이나 또는 바다물을 두어 굳힌것이다.

서슬을 둔 다음 콩단백질이 엉겨 하들하들하게 된것은 순두부이고 이것을 틀에 붓고 눌러서 순물을 짜내고 모나게 자른것은 모두부이다.

두부는 그 종류가 여러가지였다.

새끼로 묶어서 들고다녀도 뭉그러지지 않는다는 막두부, 끓여서 막 건져낸 순두부, 언두부, 기름에 튀긴 유두부, 미꾸라지를 두부속에 넣은 약두부, 베천으로 굳힌 베두부, 명주로 굳힌 비단두부 등 그 가지수가 수십가지나 되였다.

옛 기록에 전해오는 두부음식만 하여도 순두부국, 두부장, 추어두부탕, 두부전골, 두부찜, 굴두부구이, 동과두부찜 등이 있었다.

그중에서 몇가지를 본다면 굴두부구이는 뜨거운 소금물에서 익힌 굴과 삶은 토란, 두부를 꼬챙이에 꿰여서 기름장을 발라 구운것이고 동과두부찜은 동과를 얇게 썰어 끓는 물에 살짝 데치고 꿩고기, 참나무버섯, 돌버섯과 두부를 한데 섞어 빚어서 동과우에 놓고 돌돌 말아서 찐것이였다.

두부는 오늘 김치, 고추장 등과 함께 세계적으로 널리 보급되고있으며 두부로 만든 료리는 다른 나라들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발전시켜온 두부맛기풍습은 오늘도 그대로 전해져내려오고있으며 오랜 력사와 전통을 가지고있는 두부맛기는 지난해에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되였다.

본사기자

3월의 절기

3월의 절기로서는 경칩과 춘분이 있다.

경칩은 24절기의 하나로서 양력 3월 5일이나 6일에 해당된다.

경칩이라는 말은 땅속에서 겨울을 나던 벌레들이 얼음이 녹고 비가 내리는 봄이 되면서 우뢰소리에 놀라 겨울잠에서 깨여나는 때라는 뜻을 가진 말이다. 예로부터 《우수, 경칩이 지나면 대동강얼음이 풀린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대체로 정월말쯤 되면 봄기운이 짙어 얼어붙었던 땅이 풀리기 시작한다는 말이다.

춘분은 태양이 춘분점을 지나는 때인데 대체로 양력 3월 20~22일에 해당된다.

춘분이라는 말은 봄철이 중간에 이른 절기라는 뜻이다. 이날 낮과 밤의 길이는 지구의 어디서나 거의 같아진다. 춘분이 지나면 낮이 길어지면서 밤은 점차 짧아진다.

본사기자

주 소 : 평 양 통 일 신 보 사 (해외동포여러분의 서면련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289

편 집 위 원 회